

월요광장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전 지구화 현상이 가속화된 20세기말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눈에 띄게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표준 규범)가 가시화된 분야 가운데 하나가 스포츠일 것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기 스포츠인 야구와 축구의 경우, 미국 메이저리그의 박찬호나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박지성의 활약 이후로 해외 유명 리그에 대한 국내 대중의 관심이 급격히 커졌다.

국제적 방송 중계권 거래에 의해 부추겨진 측면이 있지만(이는 전 지구화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 해외의 한국 선수 활약상이 국내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해외 리그의 경기 운영 방식이나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행동 방식을 국내 리그에서도 모방적으로 따르는 양상이 보였다. 긍정적 변화의 예를 들자면, KBO 프로야구 중계 화면

글로벌 스탠다드와 로컬 스탠다드

에서 다양한 통계 수치를 제공하면서 특히 투수들의 투구 수를 세는 관행은 박찬호 이후 메이저리그 중계를 통해 보고 배운 것이었다. 이제는 15회까지 맞붙어 완투하면서 각각 200개 이상의 공을 던졌다고 하는 옛 라이브 투수 최동원과 선동열의 전설은 투구 수를 세지 않던 초창기 한국 프로야구의 ‘잔혹사’로 느껴진다.

한 수 위인 해외 유명 리그의 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당연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래서 해외 리그에서의 특이한 관습들까지 국내에 거침없이 수용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넣은 선수의 머리를 동료 선수들이 손으로 쓰다듬는 관습이 그렇다. 박지성의 활약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의 이러한 낯선 관습이 한국 대중의 눈에 익숙해진 이후로 국내의 축구선수들도 골을 넣은 선수의 머리를 쓰다듬게 되었다. 하지만 중종 그 모습이 자연스럽다기보다 ‘선진 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강박처럼 느껴지곤 한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하는 ‘경기 중 패싸움’ 관습도 그렇다. 경기 중 두 팀 선수들 사이의 충돌이야 KBO 리그에서도 초창기부터

간헐적으로 있어 왔지만, 박찬호 이후 메이저리그의 ‘벤치 클리어링’을 보고 배운 이후로 이러한 경기 중 패싸움은 한국의 야구장에서도 관습화되어 이전 보다 훨씬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팀과 선수가 워낙 많은 메이저리그와 달리 KBO 리그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의 난폭한 ‘벤치 클리어링’ 관행을 따라 하는 KBO 리그 선수들의 모습은 종종 어색하고 억지스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 보인다. KBO 리그에서 ‘몸에 맞는 공’(속칭 ‘데드볼’)과 관련한 선수들의 태도 변화가 그 한 가지 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의 몸에 맞을 경우, 고의가 아닌 이상 투수는 타자에게 전혀 사과하지 않으며 타자들도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야구 룰에 따라 타자가 곧바로 1루에 진투하게 되어 투수는 벌칙을 받고 타자는 공에 맞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얻는 셈이니, 그것만으로 충분히 공정하다는 것이 그들의 ‘합리적’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KBO 리그 투수들은 자신들이 던진 공에 맞은 타자들에게 모자를 벗는 등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하기 시작했다. ‘사과하지 않기’의 ‘글로벌 스탠다드’ 대신에 ‘사과하기’의 ‘로컬 스탠다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KBO 리그의 외국인 용병 선수들(이들 가운데 일부는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다)이 이러한 ‘로컬 스탠다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물론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려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울 때도 있고, 타자가 나이든 선수일 경우 투수의 사과 인사가 또 다른 한국식 위계 문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상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아프게 했으니 사과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편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로컬 스탠다드’가 기준에 미어왔던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더 보편적일 수 있는 것이다.

야구와 축구의 예에서 보듯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암묵적으로 간주해 왔던 것들은 실상 ‘로컬 스탠다드’였다. ‘글로벌 스탠다드’란 그런 ‘로컬 스탠다드’들 사이의 횡단과 소통, 합의와 협상의 과정을 가리키는 이름과 다르지 않다. ‘글로벌-로컬’의 질서가 재편되어 가는 지금, 광주의 ‘로컬 스탠다드’를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社說

한 사람의 죽음 놓고 또다시 갈라진 정치권

박원순 서울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만큼 깨닫힌 정치인도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 만큼 존경받는 정치인도 드물었기 때문이다. 고인은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했고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를 운영했던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대부였다. 최초의 3선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정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런 그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 달라.”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바로 전날 전직 여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를 당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이 난무했다. 아직 밝혀진 사실은 없지만 과연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그의 죽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인데, 특히 정치권이 또다시 갈라져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고인에 대한 추모가 우선이라는 분위기 속에 주요 인사들이 조문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박 시장에게 제기된 의혹과는 별개로 여성 권익 보호에 앞장선 인권변호사와 재벌 비리에 저항한 사회운동가, 서민을 보살핀 서울시장으로서의 공적을 기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세적이다.

반면 통합당은 여권의 추모 움직임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은혜 대변인은 “피해자 신상 털기에 이어서 색출 작전까지 지금 2차 가해가 심각하다”며 “대대적인 서울특별시장은 피해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가해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또한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서울시청 직원을 향해 연대를 표하며 조문 거부 입장을 밝혔다.

현 상황에서 민주당의 애도가 당연한 것처럼 통합당의 염려도, 정의당의 조문 거부도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다만 누가 됐건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이성적 판단이 결여된 채 오로지 자기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투는 진영 대결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병원 화재 참사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

고흥군의 한 병원에서 그즈제 새벽 3시 40분께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 이 병원에는 고령의 입원 환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는 1층 공간 400㎡를 태우고 2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는데, 70대 입원 환자 두 명과 80대 환자 한 명이 사망한 것이다. 화재 당시 병원에 입원 환자 69명과 간호사 7명, 보호자 10명 등 모두 86명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타까운 점은 해당 병원에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하 1층, 지상 7층, 138병상 규모의 이 병원은 일반 병원인 탓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스프링클러는 당초 요양병원 위주로 설

치하게 돼 있었지만 지난 20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됐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영업 중인 병원에는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3년의 유예 기간을 줬다. 이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해당 병원도 설치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유예 기간이 남아 있어 지금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유예 기간을 길게 준 것은 시설비 부담 등 병원의 사정을 배려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그동안 환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병원에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스프링클러를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2040광주 도시계획 이렇게

생태적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 준비해야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살아 있는 유기체라고 한다. 도시의 여러 현상과 문제도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른 기능과 행동의 영향에 의해 간접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는 단순한 환경 생태 이상의 자연과 사람, 산업 생산이 밀접하게 연계된 거대한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가 많고, 먹고 살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시로 모으게 하였고 대도시를 이루었다. 사람들이 서로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개인적,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생태계는 좋은 시민 사회의 기반이 된다. 건강한 사회적 생태계가 작동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교육,

환경 그리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하는 권리를 공유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양극화와 같은 격차,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사회적 생태계의 교란은 개인의 가치나 사회적 관계의 왜곡에 의해 비롯되기도 하지만 현재의 산업 또는 경제적 생태계의 영향이기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다. 도시의 토지와 주택은 주식 상품처럼 투기적 상품으로 작동한지 이미 오래다. 이로 인해 토지와 자연은 점차 개발에 잠식당하고, 동식물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자연 생태계는 우리에게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도 하지만 오래 세월 인식하지 못하다가 그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기후 변화로 기상 이변을 경험하고 있고,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배출의 억제는 새로운 에너지원 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출현도 이러한 원인에 의한 결과일지 모른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단지 감

염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끊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며, 도시 전체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성찰할 때가 왔다. 도시를 생태적 관점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도시는 개발과 성장의 가장 활발한 공간이었다. 도시 계획은 도시 개발을 관리하는 수단이었지만 공적 관점에서 도시 이용을 규제하고 인·허가 해주는 최소한의 관리에 불과했다.

도시를 다양하고 복잡한 생태계로 인식하고, 도시 계획은 도시의 생태적 관점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 향후 20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인공 지능 기술이 발전하여 스마트 시티가 보편화될 것이다. 과학적 분석과 빅 데이터는 보다 조화롭고 균형 있는 도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예측과 조절의 기제로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구조의 예측은 물론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와 생활 방식 그리고 소비 패

턴, 활동 공간과 동선, 이용 시간 등을 파악하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 지능은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주택, 대중교통, 도시 편의 시설, 에너지 사용 등을 조절하고 관리할 것이다. 인공 지능에 의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면 투기나 과잉 생산과 공급, 이용자와의 미스매치가 줄어들고, 다양한 시민의 수요와 욕구에 맞는 적절한 공급과 분산과 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불확실성 속에서 막연하게 도시의 인구는 늘고, 토지와 주택은 값이 오를 것이라는 오랜 학습으로 인해 과거와 똑같은 개발과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발 우선이 아닌, 보다 균형적 시각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공동체로서 건강한 도시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시 계획과 관리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후 변화, 인구 감소, 디지털 시대에 광주라는 도시가 민주, 인권, 평화 도시답게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도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 인공 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가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시민 사회가 광주 도시기본계획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기 고

할아버지 복수했어요?



이재남  
양산초등학교 교장

제주 4·3과 광주 5·18 항쟁의 참뜻을 어떻게 후세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해마다 제주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교류를 한다.

지난해에는 제주교육청에서 광주교육청을 방문하여 ‘평화 인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포럼을 가졌다. 포럼이 끝나고 뒷풀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머리가 희끗한 4·3 유족회 어르신 이 4·3 명예교사로 일선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당황했던 얘기를 꺼내셨다.

어느 중학교에 가서 처참했던 당시의 상황과 교도소에 끌려다니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

다. 맨 뒷좌석에 있던 한 늙이 “할아버지!” 하면서 손을 번쩍 들더라는 것이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할아버지, 그놈들한테 복수했어요? 제가 보복해 드릴게요!”

어르신은 그때 그 학생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금방이라도 총을 들고 달려 나갈 듯한 그 눈빛 때문에 한 동안 가슴이 먹먹했다고 하셨다. 그 어르신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보복과 복수를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면서 우리 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 끝을 흐리셨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모두가 순간의 고민에 빠졌다.

플랜트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의 수용소를 기억할 때 우리는 종종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라는 글귀를 생각하곤 한다. 나는 젊은 날 전투완 군사 독재 시절 5·18 학살의 진실에 다가설 때 마다 잡을 수 없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다. 내 젊은 혈기로는 도저히 용서

할 수가 없었다. 부모 형제를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한다는 말인가? 그 용서는 진정한 용서인가? 40년 전 그때 그 시절의 ‘군사 독재 타도!’의 분노는 시대적 양심이었었고, 분노하지 못하는 젊은이는 비겁한 자였다. 아름다운 분노는 존재하는가?

그 ‘분노’는 세월과 함께 희석되어, 일부는 사회 변화의 자양분이 되고, 일부는 가해자 처벌을 포함하여 미완의 역사 바로 세우기 과제로 남아 있다. 다시, 손을 번쩍 들고 분노로 이끌거리는 한 중학생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자. 그 까까머리 중학생은 우리의 역사 속에 늘 그렇게 손을 들고 있었다. 붉은 피 선언했던 지리산 계곡에도, 학살의 들불이 번지던 한라산 오름 등골에도, 여순의 군인들 가슴에도, 보도연맹의 완장에도, 서북청년단의 죽창에도, 26살 제주 김달삼의 가슴에도 그 분노가 있었다.

나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다고 하여, 그 ‘분노’를 불온시하거나, 불순한 감정으로 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다. 누구에게나 ‘분노’는 두 눈 부릅뜨고 냉철한 이성으로 직시해야 할 정확한 감정이지만, 조심스러운 ‘감정’이다. 다만, 그 분노가 보복이나 화풀이가 되지 않고, 그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는 곳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평화·인권 교육이라고 명명하고, 즉자적 분노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와 광주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평화 인권 교육 주관을 설정하고, 매년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산중인들을 모셔서 명예 교사로 위촉하고, 역사 교육을 바로 하기 위해 전국에 4·3과 5·18 교육자료를 보내고, 전국의 교원들을 매년 1천 명 가까이 초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진실을 보고, 분노하라! 그러나 다시는 이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보복과 복수가 아닌, 평화와 인권의 역량이 차고 넘치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후세들을 배고픔과 냉전의 분노에 빠지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無等鼓

“선생님은 늘 내 곁에 계셨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선생님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아름다운 것들을 대할 때 느꼈던 기쁨 가운데 얼마만큼이 나 스스로 느낀 것이고, 얼마만큼이 선생님의 영향인지 가능할 수 없다. 선생님은 나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고, 내 삶의 발자국은 선생님 삶의 발자국과 일치한다는 느낌이 든다. 내가 지닌 좋은 점은 모두 선생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나의 재능이나 영감이나 기쁨은 모두 선생님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 깨어났으므로.”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걸린 큰 병으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지만 그 대가로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린 헬렌 켈러(1880-1968)가 자서전 ‘내가 살아온 이야기’(The Story of My Life)에서 ‘영혼의 친구이자 스승’인 앤 설리번에 대해 쓴 구절이다.

크나 큰 장애를 극복해 낸 헬렌 켈러가 설리번 선생님과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하는 장면을 인터넷 등을 통해 보고 싶다면 ‘사람의 인생에서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되새겨 보게 된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장애인으로서

우두커니 어둠 속에 앉아 평생을 보내야만 했을 헬렌 켈러가 설리번을 만나 일반인보다 더욱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스승을 잘 만나야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는 세간의 말을 실감하게 된다.

배움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스승 또는 지도자란 늘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다. 특히 11대로 기술을 전수받아야 하는 예체능을 평생의 업으로 선택한 이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스승은 누구보다 더더 소중한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문화·예술·체육계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학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존경과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사제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로 전락해 버린 것만 같아 씁쓸하다.

남보다 뛰어난 기술을 익히고 각 분야의 주류 세계로 편입하는 것이 곧바로 돈과 권력을 얻는 길이기에 현실 세계의 운영 원리가 사제 관계에서마저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 ‘사랑과 헌신’의 정신마저 영영 사라져 버린 건 아니지, 아쉽기만 하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사랑과 헌신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